

(1)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74970&ctg=20

천존회 교주 8년 선고...30억대 사기혐의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

는 15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牟幸龍.66)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씨 부인 박귀달(51)

피고인과 천존회 증무원장 이낙우(47)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존회의 교리나 가르침 속에 직접적으로 '종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일반 신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천존회는 최근 10년 간 전국 금융기관 5천여개를 상대로 맞보증 등의 수법으로 2천 4백 32건에 걸쳐 3백 80억원 상당의 사기극을 저지른 혐의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2)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0071028000401&mobile=false>

문화일보사회

기사 게재 일자 : 2000년 07월 10일

종교집단 '천존회' 380억 대출사기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 부장검사)는 10일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380억여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종교집단 천존회(天尊會)교주 모행룡(66)·박귀달(52)씨 부부와 증무원장 이낙우(47)씨,법률고문 강동범(44)변호사 등 42명을 구속기소하고 교단간부 등 11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85년부터 자신을 '하계천존(下界天尊)'으로 신격화해 제자들을 모집한 모씨는 90년대 들어 '2000년 종말론'을 유포하고 신도 1500여명을 동원,전국 5000여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 행각을 벌여 384억여원을 받아 가로챘 혐의다.

모씨는 사기대출금으로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FM그룹'을 설립하고 강원도 홍천에 성지(聖地)인 '대라천궁'을 건설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곤기자>

(3)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0/005000000200007091854333.html>

[천존회] 천존회 10년 사기행각

병원건립·해외리조트 개발등

사기목적 이벤트까지 꾸며

검찰에 적발된 종교집단 중 최대규모로 꼽히는 '천존회'는 전국 300여개 수도원과 6개국 13개 해외지부, 신도 15만명이라는 거대한 인적·물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헌금 명목의 사기뿐 아니라 병원건립과 리조트개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주 모행룡씨 부부는 지난 97년 (주)마살개발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태평양의 마살군도가 조만간 융기할 것이니 이 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모씨 부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 투자자를 데리고 현지 개발예정지를 둘러보게 했으나 마주로섬의 해발이 최고 10m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모래땅이어서 현지를 둘러본 투자자들이 '투자가치가 없다'고 외면했다.

천존회는 그러나 마살군도로부터 리조트 개발을 대가로 100년간 마주로섬을 임차받은 것을 놓고 "국토를 확장했다"며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는 등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신도들에게 대출사기 연장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마살군도 정부는 천존회를 사기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해 놓은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모씨는 또 종말론을 주요 헌금 모금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종말시기도 몇차례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씨 부부는 지난 91년 강원도 홍천에 대라천궁을 건립하면서 "93년에 종말이 온다"며 종말론을 유포했다가 신도들의 헌금이 잇따르는 등 교세가 급성장하자 93년에 슬그머니 "2000년 음력 1월15일 종말이 온다"고 연기했다.

특히 모씨 부부는 지난 1월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신들이 구속되자 신도인 강동범 변호사(구속)를 통해 "종말이 내년 1월15일로 연기됐다"며 신도들에게 결속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천존회가 10년이 넘게 이런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천존회쪽이 정부에 종교법인으로 등록한 뒤 '국가가 인정한 몇 안되는 종교단체'라며 신도들을 현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4) KBS 뉴스 <http://news.kbs.co.kr/society/2000/07/09/95888.html>

종말론의 종말

Ⓞ앵커: 천존회가 내걸었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지만 천존회 신도들은 종말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 한마디에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교주가 구속된 이 마당에도 여전히 이 말을 믿고 있는 신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행룡(천존회 교주):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신이 데리고 올라가서 7년 있다 환란이 지난 후에 내려온다.

Ⓞ기자: 환란 때 구원 받으려면 성전으로 피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집니다.

성전을 짓는 데만 든 돈이 150억원.

모두 신도들이 헌납한 돈입니다.

기도원을 지을 때는 93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93년이 되어서는 2000년 1월로 바뀌었습니다.

종말이 온다던 올 1월, 교주부부는 구속됐고 이번에는 내년 1월로 연기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모행룡(천존회 교주): 기를 받아라... 생명을 받았라...

Ⓞ기자: 천존회는 15년 전 교주부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만든 기수련 단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민족종교 같지만 각종 예언설을 짜집기한 종말론과 교주 신격화가 교리의 뼈대였습니다.

Ⓞ임명식(제자): 위 사람은 천존의 인류 구원사업에 신명을 다할 자이기에...

Ⓞ기자: 종말론을 앞세워 돈을 모은 사교교주.

쉽게 현혹돼 맹신에 빠진 신도들.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입력시간 2000.07.09 (21:00)

(5) SBS 그것이 알고싶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39049



'돌아온 교주' 그를 따르는 이유는 2008-07-04 16:10

2000년 '천존회' 사건 교주 박 씨의 재등장으로 단체 부활...피해자들, "현금 피해액 100억여원 넘는다" 주장

5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SBS<그것이알고싶다(연출 최삼호)>에서는 '돌아온 교주 - 그를 또 따르는 이유'편을 통해 지난 2000년 1월, 사이비 종교 사상 최대 사기 피해로 꼽히는 이른바 '천존회' 사건의 핵심인 사이비 교주의 실체를 고발하고, 맹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취재, 분석한다.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 5월 "무장을 한 괴한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는 A씨 부부의 제보를 접수했다. 그런데 취재결과 무장 괴한들이 속한 종교단체의 교주는 '천존회'의 전 교주 박 씨였다.

천존회 사건은 지난 2000년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워 신도들로부터 1500억 원을 헌납 받고 그 중 일부를 횡령한 '천존회'의 교주 부부가 체포된 사건이다. 이들은 천부(모氏), 천모(박氏)라 자칭하며 최고신인 천존의 지상대리인으로 행세했다. 또 종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지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맞보증 대출을 조장해 거액의 성금을 모았다. 당시 대부분의 신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직장, 가정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이 사건은 교주 부부가 각각 징역 8년,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제작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출소한 교주 박 씨는 옛 천존회 신도들을 규합해, 다시 단체를 창립하고 기존 교리를 수정해 스스로를 최고신과 합일된 '지상 천존'으로

높였다.

문제는 또다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교주가 헌금을 강요해 피해액이 100 억여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신도들은 교주가 강요한 헌금을 내기 위해 온 재산을 헌납하고도 빚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교주는 가마를 타고 다니며, 끼니마다 고급 한정식이 제공되는 화려한 거처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하거나 비리가 드러나 교단이 와해 직전까지 가기도 하지만, 교주의 재등장으로 또 다시 세력을 규합해 단체가 부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작진은 주목할 점으로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었던 신도들 중 상당수가 돌아온 교주를 다시 신봉하고 같은 피해를 또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실체가 드러난 허황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교주들이 다시 신도들을 맹신에 빠트리는 수법에 대해 알아봤다.

(SBS 인터넷뉴스부)

(6) KBS 뉴스

<http://news.kbs.co.kr/society/2000/06/17/89010.html>

천존회 대출사기사건, 고문변호사도 가담

◎앵커: 종말론을 내세운 신흥 종교단체 천존회의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 단체의 고문 변호사도 대출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변호사를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금을 하면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신도들을 맞보증 세워 돈을 대출받은 뒤 가로채는 수법.

건강수련원으로 문을 연 지 20년 만에 15만명의 신도를 보유한 천존회의 급성장 비결이라고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미 교주 모행룡 씨 부부를 포함해 이 단체 간부 38명을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금액만 350여 억원, 사기액수는 모두 1500여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단체의 고문 변호사인 강동범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구속된 간부 신도들을 접견하며 증거자료를 파기하고 조직적으로 수사방해를 지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강 변호사는 직접 대출사기에 가담까지 해 신도들로부터 20여 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대출사기에 가담한 나머지 간부급 신도 100여 명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종욱입니다.

(7) KBS 뉴스

<http://news.kbs.co.kr/society/2000/07/12/96970.html>

법을 유린한 변호사

◎앵커: 사회 지도층을 풀어보면 사회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층이라면서요, 소위 사회 지도층인 변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자 변호사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최근 한 40대 변호사가 원조교제를 하다가 입건돼 또 도덕적인 지탄을 받은 데 이어서 중견 변호사들이 현대의 주가조작 수사를 방해했는가 하면 사기혐의로 수배되는 변호사까지 늘고 있습니다.

슬렁이는 변호사 사회, 안세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말론을 퍼뜨리며 신도 1500여 명으로부터 380억원을 가로챈 천존희 교주 모행룡 씨 부부, 이들 뒤에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천존희 법률고문 강동범 변호사는 교주의 혐의를 진술한 간부들을 설득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고, 천존희 수사가 종교탄압이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법원에 보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던 강 변호사는 본인도 신도 돈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현대상산 주가조작 사건에도 변호사 3명이 개입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전직 간부 출신 변호사 3명이 현대그룹의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현대의 핵심인사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허위진술을 조연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이들 변호사 3명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3900억 금융사기범 변인호의 해외도주를 변호사가 도왔다가 지탄을 받았고, 변호사 4명이 사기혐의로 구속되거나 수배됐습니다.

이어 이달에는 한 40대 변호사가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하다가 적발되자 변호사협회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잇단 비리사건이 변호사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수는 지난 98년부터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3년 새 개업한 변호사는 1200여 명, 10년 동안 개업한 전체 변호사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경쟁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달 평균 1500만원의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 변호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그만큼 수입을 올리지 못해서 빚을 지고있습니다.

수임경쟁이 치열할수록 법조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윤기원(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자기 주위에서 변호사를 추천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브로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과연 뿌리칠 수 있겠는가, 사무실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사례집을 펴내고 자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검찰도 변호사 100여 명의 비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혀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